

가을의 절정... 열린 음악회와 함께

26일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서 녹화... 레드벨벳·모모랜드 등 유명 아이돌 가수 출연

정읍의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화려하고 신명나는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26일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 음악회' 녹화가 진행되는 것. 내장산 단풍이 제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장산을 비롯한 정읍을 찾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읍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화는 저녁 7시 30분 시작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전국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의 단풍과 천년의 사랑 백제가요 정읍사, 민중의 합성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데 알 수 있듯 역사와 문화, 예술의 본고장인 정읍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로 전라도 정도 천년, 전라도 방문의 해까지 함께 기념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섭 시장은 "결실의 계절, 어느 계절보다 아름다운 가을에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과 정읍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정읍의 가을을 만끽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모든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서는 지방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유명 아이돌가수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가 높다.

지난 봄 평양 공연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드벨벳을 비롯한 '대세 아이돌'로 자리를 굳힌 모모랜드, 스트레이키즈가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악인과 가수 겸 공연 예술가의 만남으로 유명한 박애리·팝관현준 부부, 뛰어난 가창력의 서문탁과 박완규가 힘을 더하고 인기 뮤지컬 가수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정읍 출신의 인기 가수 송대관 등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해줄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좌석 만석 시 초대권 소지자도 입장이 불가하나 공연장 주변 스탠딩 관람은 가능하다.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수성주공1차아파트, 정읍시청

추억을 선사,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서는 지방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유명 아이돌가수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가 높다.

지난 봄 평양 공연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드벨벳을 비롯한 '대세 아이돌'로 자리를 굳힌 모모랜드, 스트레이키즈가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악인과 가수 겸 공연 예술가의 만남으로 유명한 박애리·팝관현준 부부, 뛰어난 가창력의 서문탁과 박완규가 힘을 더하고 인기 뮤지컬 가수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정읍 출신의 인기 가수 송대관 등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해줄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좌석 만석 시 초대권 소지자도 입장이 불가하나 공연장 주변 스탠딩 관람은 가능하다.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수성주공1차아파트, 정읍시청



후문, 정읍교육청, 내장산문화광장의 코스로 운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 위해 일어난 민초들의 이야기'

내일 7시 고창문화의전당서 연극 '갑오백성' 무료관람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의 승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7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연극 '갑오백성'을 선보인다.

연극 '갑오백성(각 집진영, 연출 조민철, 기획 정성구)'은 2017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2018년 전주시립극단 정기공연작품으로 제작됐다.

'갑오백성'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갑오년(1894)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이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최초의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반일 민

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항일의병과 일제강점기 3·1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역사의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민족·민중 항쟁의 근간인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군 관계자는 "연극 '갑오백성'은 뛰어난 한 위인이 아닌 위대한 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평범한 민초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며 "이번 연극을 통해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음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책과 영화가 만나 이루는 지식의 향연 '책 영화제 고창... 어찌면 우리의 삶은'

26일부터 3일간... 북씨네토크·강연·전시·체험행사 풍성

책과 영화의 축제, '제2회 책 영화제 고창'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창 책마을해리에서 열린다.

여덟 개 나라 스물일곱 편의 책과 영화를 만나는 이번 책 영화제는 'Life-X, 어찌면 우리의 삶은'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부터 일반인 가족 모두가 삶의 의미를 살피는 책과 영화를 만나게 된다.

'책 영화제'는 책을 원전으로 하는 영화를 모아, 책과 영화 두 매체 사이를 누비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특별한 영화제이다.

'책 영화제 고창'은 영화로 빛난 책이야기 '책영화365전', 상영작 27편 영화 포스터전시회, 미리보는 작은 한국지역 도서전, 류충렬 사진전, 소원 나무 소원읽기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체험 놀이와 함께 한다.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는 책숲, 갤러리와 도서관, 책뜰(아외상영) 사이사이에서 펼쳐진다.

첫날은 조일래 문화평론가, 김형석 영화평론가의 책과 영화 이야기(북씨네토크)와 가까운 갯벌에서 밤영화 마실(갯벌영화상영)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고창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의 공간을 찾아 살피는 북씨네토크 '영화가 사랑한 고창'이 열린다.

둘째 날은, 고창지역 청소년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상영하고 제작 후기를 듣는 '애니페스티벌', 씨알미디어 조은이 이사(시나리오 작가)로부터 듣는 영화 속 진로 이야기, 송기영 소설가로부터 듣는 '어떻게 삶은 시가 되었는가?' 강연, '끝나지 않은 전쟁' 국회의원 안민석 작가로부터 '최순실 추적기에서 평양 친구 이야기' 북토크가 계속된다.

27일 밤부터 이틀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영화캠프'가 광운대 영화과 강성을 교수의 길잡이로 진행된다.

셋째 날은, 어찌다 그림인연으로 만난 책마을아침들과 만남, 책마을 예술작가와 만남에 이어, 해리포터즈 특강, 김강정 작가의 '온몸으로 빛나는 흙 예술 강연'이 이어진다.

전통인쇄놀이부터 영화투어 대형 옷돌



이까지 갖가지 체험놀이에 27일과 28일 이들은 최근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된 고창읍성을 비롯해 영화가 사랑한 고창의 영화공간을 찾아가는 '시네부어 책 영화버스'를 운행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을사회'는 책 영화와 어울리는 주 전부터와 지역 상품판매코너를 운영한다. 지난해 호평을 받은 대화소셜 첫번째기는 올해도 책마을해리 책마을에서 이어진다.

출판테마공간 '책마을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대한민국 대표 책마을이다.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을 모토로 책 읽는 마을, 책 만드는 마을을 표방해 2012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종이와 활자공간을 비롯해 책이 태어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책숲, 갤러리와 작은도서관, 책뜰, 트리하우스 동학평화도서관, 마을책방 등의 공간에서 책과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는 사회적기업 '꽃피는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며 참여는 무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행복꿈틀이
뭐예요?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합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농가소득 50%이상 늘리는 새마을사업 농업이 새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한 농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정읍시지부	지부장	조천형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황토현농협	조합장	옥익호
칠보농협	조합장	권혁빈
태인농협	조합장	이문석
신태인농협	조합장	류근백
샘골농협	조합장	허수종
순정축협	조합장	최기환
정읍원협	조합장	손사선

축! 전주매일 창간